

## 디르크 볼렌호븐(D.H.Th. Vollenhoven)의 생애와 사상<sup>1</sup>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ife and thought of D.H.Th. Vollenhoven, another famous Dutch Christian philosopher together with Herman Dooyeweerd. Both developed the so-called 'reformational philosophy' in the Netherlands. Dooyeweerd's transcendental critique is more or less well introduced in Korea but Vollenhoven's philosophy remains uncovered among Korean Christian philosophers. Since Vollenhoven's thought is not always the same as that of Dooyeweerd but rather quite contrasting, I think it is necessary to have a look at his view. So I will discuss first his life briefly and then his major thinking such as calvinistic philosophy and the reformation of philosophy, his systematic philosophy, consistent problem-historical method, his view of science and faith and his thetical-critical method. After that, a brief comparison between Vollenhoven and Dooyeweerd will be made. I will conclude then with some remarks about his influence and with my own evaluation.

### 1. 들어가는 말

현대의 기독교 철학자들 중, 네덜란드의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와 디르크 볼렌호븐(Dirk Hendrik Theodore Vollenhoven: 1892-1978)은 기독교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빠뜨릴 수 없는 두 사람이다. 따라서 이들의 기독교 철학 체계는 반드시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도여베르트가 보다 더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반면 볼렌호븐은 다소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상을 지나치게 도여베르트로부터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왜냐하면 볼렌호븐 역시 도여베르트 못지않게 독창적인 기독교 철학자이기 때문이다. 좀더 많이 알려진 도여베르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발표한 바 있고<sup>2</sup> 국내에도 많이 소개되었으나 볼렌호븐에 대해서는 아직 소개된 논문이 거의 없어 본고를 통해 그의 생애와 주요 사상 및 영향을 간략히 소개하고 제 나름대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 2. 디르크 볼렌호븐의 생애<sup>3</sup>

볼렌호븐은 도여베르트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의 개혁주의라는 분위기에서 자라났다. 암스테르담 개혁교회의 김나지움(Het Gereformeerd Gymnasium)에서 공부한 후,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가 설립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그러므로 당연히 카이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외에도 조직 신학자였던 헤르만 바빙크(H. Bavinck)로부터 유신론적 실재론(theistic realism)을, 빌헬름 헤이싱크(W. Geesink) 교수로부터는 임마누엘 칸트의 비판 철학을, 얀 볼터(J. Woltjer) 교수로부터는 고전어와 고대 철학 그리고 로렌쯔와 아인슈타인의 자연과학이론 등을 배웠으며 바우만

<sup>1</sup> 본 논문은 『기독교 철학』, 2008, Nr. 6.에 실렸던 논문이다.

<sup>2</sup> 최용준, 「헤르만 도여베르트: 변혁적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철학의 성격을 확립한 철학자」, 손봉호 외,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9인』, (서울: IVP, 2005). pp. 37-66. 이 부분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박사학위논문 *Dialogue and Antithesis: A Philosophical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Herman Dooyeweerd's Transcendental Critiqu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2000)을 주고 참고했다. 본 논문은 아래 웹사이트 <http://www.dooy.salford.ac.uk/papers/choi/index.html>에서도 찾을 수 있다.

<sup>3</sup> 이 부분은 J. Stellingwerf, "Prof. dr. D. H. Th. Vollenhoven (1892-1978)", *Beweging*, 5, 1992를 참고했다.

(Bouman) 교수로부터는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바우텐데이끄(F.J.J. Buytendijk)에게서는 인간과 동물의 심리적 양상에 대해 배웠다.<sup>4</sup>

그는 안 볼터 교수의 지도로 철학박사 과정을 시작했으나 지도 교수가 도중에 사망하여 그 후부터 헤이싱크 교수의 지도에 따라 '유신론적 관점에서 본 수학 철학'(De wijsbegeerte der wiskunde van theïstisch standpunt, *Philosophy of mathematics from a theistic point of view*)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하여 1918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에서 볼렌호븐은 당시 자유대학교의 라이벌이었던 암스테르담 대학의 수학 교수로 재직하던 루트겐 브라우어(Lutgen Brouwer) 박사의 직관주의(intuitionism)를 비판하였다.<sup>5</sup>

그 후 그는 도여베르트와 결혼하여 네덜란드의 남부 오스트까뻐레(Oostkapelle)의 개혁신교회에서, 그 다음 1921년부터는 헤이그(Den Haag)에서 목회했는데, 그가 헤이그에 있을 때 도여베르트는 카이퍼 연구소에 재직하였다.<sup>6</sup>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함께 연구하면서 기독교 철학의 기초를 놓았고<sup>7</sup> 나아가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기독교 철학 운동이 이들의 제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도 물론 없지 않았다. 가령, 도여베르트가 자신의 철학에서 '법' 개념을 강조하면서 '법사상 철학'(De wijsbegeerte der wetsidee, *The philosophy of the law-idea*)라고 부른 반면 볼렌호븐은 자신의 철학이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함을 강조하여 '칼빈주의 철학'(Calvinistische wijsbegeerte, *Calvinistic philosophy*)이라고 불렀다. 그 외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기독교 철학 간에 유사점과 상이점이 조금씩 더 분명해졌다.

그러다가 1926년 볼렌호븐은 도여베르트와 함께 자유대학교의 교수로 임명되었다. 도여베르트가 법학부의 법철학교수로 임명된 반면 볼렌호븐은 철학부 최초의 전임 교수로 임용되어 철학 개론, 조직 철학, 철학사, 그리고 나중에는 심리학 기초도 가르쳤다. 도여베르트 못지않게 볼렌호븐 교수도 매우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로서 통찰력과 단순성, 그리고 인간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다.

또한 그는 1963년에 은퇴할 때까지 교수로 봉직하면서 도여베르트와 함께 창립한 기독교 철학자들의 모임인 네덜란드 칼빈주의 철학협회(Vereenigen voor Calvinistische Wijsbegeerte: the Association for Calvinist Philosophy)<sup>8</sup> 초대 회장으로 27년간 재임했다. 그가 회장으로 있을 때, 2차 세계대전 후, 네덜란드의 여러 종합대학교에 기독교 철학 석좌 교수제를 창설하였다. 이 자리에 최초로 임명된 네 명의 교수는 그와 도여베르트의 2세대 제자들인 자우테마(S.U. Zuidema: 1906-1975), 메케스(J.P.A. Mekkes: 1898-1987), 포프마(K. J. Popma: 1903-1986) 그리고 반 리센(H. Van Riessen: 1911-2000)이었다.<sup>9</sup>

<sup>4</sup> [http://en.wikipedia.org/wiki/D.\\_H.\\_Th.\\_Vollenhoven#Vollenhoven\\_and\\_Dooyeweerd](http://en.wikipedia.org/wiki/D._H._Th._Vollenhoven#Vollenhoven_and_Dooyeweerd)

<sup>5</sup> [http://en.wikipedia.org/wiki/D.\\_H.\\_Th.\\_Vollenhoven#Doctorate\\_and\\_the\\_Free\\_University](http://en.wikipedia.org/wiki/D._H._Th._Vollenhoven#Doctorate_and_the_Free_University)

<sup>6</sup> 그러므로 두 사람은 처남-자형 지간이며 헤이그에서 도여베르트는 볼렌호븐이 목회하던 교회에 출석했다.

<sup>7</sup> 볼렌호븐의 초기 사상적 발전에 관하여는 John H. Kok, *Vollenhoven: His Early Development*, (Iowa: Dorst College Press, 1992) 참조.

<sup>8</sup> 지금은 개혁 철학 협회 (Stichting voor Reformatorische Wijsbegeerte: Association for Reformational Philosophy)라고 불린다.

<sup>9</sup> 볼렌호븐이 자유대학교 철학부에서 1926에서 1951년까지 25년간 가르친 기념으로 그의 제자들이 논문집을 출판하

이것은 한때 그가 네덜란드 철학협회(*Algemene Nederlandse Vereniging voor Wijsbegeerte*)의 회장도 역임하면서 여러 학자들과 많은 접촉을 가졌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남아공,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여 여러 제자들과도 교류하였다.

볼렌호븐은 은퇴한 후에도 제자들에게 몇 년간 강의를 계속했다. 이 때 그에게는 새로운 통찰력이 생겨 몇 가지 주제에 관해서는 도여베르트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였다. 무엇보다도 철학의 개혁자로서 그는 제자들에게 세상 철학자들과는 달리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질문들을 다루었으며 매우 명료하고 단순한 단어들로 이것들을 규명했던 기독교 철학자였다.

### 3. 디르크 볼렌호븐의 사상 전개<sup>10</sup>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볼렌호븐 역시 네덜란드 개혁교회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9 세기 중반에 네덜란드 사회를 기독교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네덜란드 최초의 기독교 정당인 ‘반혁명당(Anti-Revolutionary Party)’을 창시한 흐룬 반프린스터러(*Groen van Prinsterer*), 그의 뒤를 이어 네덜란드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 애썼던 카이퍼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대학교의 세 교수였던 바빙크, 헤이싱크 그리고 볼터의 영향 등이 그것이다. 물론 당시 유럽의 철학계를 주도하던 독일의 신칸트주의나 현상학의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볼렌호븐은 인본주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개혁주의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하나님의 주권을 개인적인 삶과 사회-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학문 영역에도 인정하고 드러내어야 함을 강조했다. 즉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길 원하였고 따라서 철학에서도 성경 중심적 철학을 추구했던 것이다.

#### 1) 칼빈주의와 철학의 개혁

볼렌호븐의 주저는 *Het calvinisme en de reformatie van de wijsbegeerte* (*The Calvinism and the reformation of the philosophy, 칼빈주의와 철학의 개혁*)<sup>11</sup> 이다. 이 책은 2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 부는 조직적인 면으로 칼빈주의, 성경적 철학의 근본 동인 그리고 비성경적 철학의 근본 동인에 대해, 제 2 부에서는 역사적인 면에서 기독교 철학사를 중세시대까지 기술했다. 그는 여기서 철학의 개혁이란 바로 중세의 종합 철학을 배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세계를 객체화시켜 보려고 한 데카르트적 입장에 서있는 현대 철학도 거부하면서 이것과 기독교 철학은 결코 혼합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sup>12</sup>

---

있는데 자우데마와 포프마가 편집하였다. *Wetenschappelijke bijdragen door leerlingen van Dr. D.H.TH. Vollenhoven* (*Scientific contributions by students of Dr. D.H.TH. Vollenhoven*) (Franeker: T. Wever, Potchefstroom, 1951).

<sup>10</sup> 이 부분은 A. Tol, ‘Vollenhoven als systematicus’ (조직철학자로서의 볼렌호븐) *Beweging*, 5, 1992와 John H. Kok, ‘Vollenhoven, Scriptural Philosophy, and Christian Higher Education’, [www.aspecten.org/vollenhoven/kok.html](http://www.aspecten.org/vollenhoven/kok.html) 을 주로 참고했다.

<sup>11</sup> Amsterdam: H. J. Paris, 1933.

<sup>12</sup> 같은 책, p. 16

그 대신 말씀과 법으로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철학을 시작한다. 즉 하나님은 실재하시며 그의 법은 우주 전체에 유효하고 인간과 우주는 그 법에 종속된다고 그는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법-우주'(God-Law-Cosmos)야말로 볼렌호브의 철학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너무나 다양하지만 동시에 이 다양성은 무질서하지 않고 철저하고 조화로운 질서와 법칙 속에 존재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러한 우주의 다양성과 법칙적인 질서를 둘 다 존중하면서 볼렌호브는 도여베르트와는 달리 매우 신중하고도 함축적인 철학적 표현들을 구사하고 있다.<sup>13</sup>

먼저 그는 '칼빈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엮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 철학의 출발점임을 주장한다. 나아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지만 그것과는 구별되는 주권적 하나님에 대한 계시, 언약(*unio foederalis*) 사상, 그리고 타락의 영향에 대해 논증한다. 볼렌호브는 이 세 가지가 곧 성경적 철학의 근본 동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도여베르트의 창조-타락-구속 동인과는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없지만 강조점이 약간 다를 수 있다. 나아가 타락의 영향에 대해서 볼렌호브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 죄의 형벌로서의 사망 그리고 구세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계시로 다시 세분한다. 이러한 부분 또한 도여베르트와 용어는 다르긴 하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틀에서 볼렌호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즉 경계로서의 법, 우주적 영역, 양상, 주체 및 객체적 기능, 상호 정합성 및 유추, 종교적으로 규정되는 마음 그리고 타락과 은혜 등이 나온다. 이와 대조되는 비성경적 철학의 근본 동인으로서 먼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부인하는 일원론(*monism*) 및 기타 사상들을 그는 비판한다.

볼렌호브는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말씀 계시(*Word-revelation*)와 그 결과 주어진 성경 계시(*word-revelation*)로 구분하면서, 후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피조물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sup>14</sup> 나아가 성경의 독특성에 관해 볼렌호브는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째로 성경의 언어는 단지 그 언어가 가리키는 피조물들에 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에 대해서도 말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성경의 독특한 영감성으로 성경의 기자들은 그들이 이해하는 단어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이며 이 믿음은 우리 마음 중심의 문제이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이러한 성경 계시는 학문적 사고의 전체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러한 계시는 일상적인 용어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시며 피조물은 창조주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볼렌호브는 종교란 창조주와 피조물 특히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하며 이 관계는 '언약'적임을 강조한다. 즉, 창조주를 향하여 인간은 두 가지의 방향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과 불순종하는 방향이 그것이다. 이 두 방향은 서로 화합할 수

<sup>13</sup>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은 깊이가 있어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sup>14</sup> D.H.Th. Vollenhoven, *Logos en ratio, beider verhouding in de geschiedenis der Westersche kentheorie.*(로고스와 이성, 서양의 인식론 역사에서 양자의 관계)(Kampen: Kok, 1926), p. 26.

없는 대립 관계(*antithesis*)이다. 종교에서 이러한 영적 대립 관계는 전기능적(*prefunctional*)이며, 이 부분의 방향 설정이야말로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한다고 볼렌호븐은 주장한다.

따라서 철학의 개혁이란 무엇보다도 종합 철학(*synthetic philosophy*)을 극복하는 것인데 이 종합 철학은 근본적으로 성경적 신앙과 그리스 철학에서 기원한 인본주의적이며 중립적인 철학의 혼합을 뜻한다. 이러한 종합 철학에 대한 비판이야말로 볼렌호븐이 가장 역점을 두고 강조했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볼렌호븐은 이 종합 철학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15</sup> 첫째로 가장 오래된 모델은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주입하는 것이다. 즉, 성경에서 철학적인 것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이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로고스(*logos*)’라는 철학 용어에 익숙한 사람이 요한복음 1 장에 나타난 ‘로고스’를 성경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워서 알고 있는 기존 개념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성경 속에서 그 의미를 가져오는 주석(*exesis*)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 의미를 주입(*inlaying*)하는 것(*eisegesis*)이다. 그러면서 성경이 마치 그러한 개념을 지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방법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한 성경 본문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이교적인 해석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합 철학 때문에 교회가 혼돈스러워지기도 하므로 이 부분들이 분명히 개혁되어야 한다고 볼렌호븐은 강조한다.

둘째 방법은 첫 번째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 철학을 절대 배격하면서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고 따라서 신앙과 이성 전혀 동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경과 철학의 관계를 ‘역설적’(*paradoxical*) 관계로 해석한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교부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냐?’고 외쳤던 터툴리안이라고 볼렌호븐은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종합 철학은 중세의 자연과 자유(*nature and grace*)에서 볼 수 있다.<sup>16</sup> 여기서 ‘자연’과 ‘초자연’은 구분된다. 아담은 이 초자연적 의를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했으나 은혜로 회복한다는 것이다. 이방 철학자들의 사상은 여기서 ‘자연’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상에도 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내용과는 배치되며 둘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원론에 해당한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는데 그것은 이방 사상(자연)과 성경적인 입장(은혜)과의 상호 관계가 역설적이 아니라 ‘준비’ 단계와 ‘성취’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철학의 개혁은 이 세 가지 입장을 모두 지양하고 순수하게 성경에 기초한 철학,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피조물됨을 온전히 인정하는 철학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볼렌호븐은 주장하고 있다.

## 2) 조직철학개론(*Isagoogè Philosophiae: Introduction to Philosophy*)

<sup>15</sup> D.H.Th. Vollenhoven, *Mededelingen van het Vereniging voor Calvinistisch Wijsbegeerte (칼빈주의 철학협회 소식)* Sept. 1953, pp. 6-9. 이 문서는 영어로 [www.dooy.salford.ac.uk/voll/scripture.phil.html](http://www.dooy.salford.ac.uk/voll/scripture.phil.html)에 번역되어 있다.

<sup>16</sup> 이것은 도어베르트가 중세 철학 및 문화의 종교적 근본 동인으로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본서는 볼렌호브의 조직철학 강의안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가장 나중에 나온 것<sup>17</sup>은 앞에서 언급한 그의 주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즉, 후자에서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들어가는 반면 전자에서는 반대로 세부적인 것에서 전체로 나아가는 방식을 취한다. 먼저 그는 개체간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수, 그림, 무생물, 식물, 동물, 인간으로 진행하며, 두 번째로는 이러한 개체들 간의 양상적 차이를 설명한다. 가령 동물과 인간의 심리적 양상, 인간의 경제적, 윤리적 양상 등이다. 마지막으로는 발생적 현상에 대해 논하는데 이것은 사물,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의 발생 및 발전을 의미한다.

볼렌호브에게 있어 전체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포함하면서 동시에 모든 가능성들까지도 포함한 피조계를 뜻한다. 이것은 인간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모든 피조물이 속해 있는 종합적 실재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실재의 다양성 속에서 그 다양한 부분들을 서로 구분하면서도 연결시켜 주는 관계 또는 질서를 연구함으로써 전체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다. 나아가 인간 자체도 이러한 전체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전체 피조계도 자체적으로 목적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볼렌호브도 카이퍼나 도여베르트와 같이 창조주는 인간에게 모든 피조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sup>18</sup>해 나가야 하는 사명<sup>19</sup>을 주었으며 인간의 삶과 문화 및 역사는 이러한 사명 및 책임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규범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철학자 또한 중립적일 수 없고 그의 사고에도 창조주를 향한 순종적인 또는 불순종적인 방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렌호브는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 틀의 핵심 개념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 법, 그리고 우주를 말하고 있다. 특히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법은 역시 ‘사랑의 법’임을 그는 강조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그의 학문 등 모든 문화적 활동을 통해 피조물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며 발전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개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볼렌호브 역시 도여베르트와 마찬가지로 법이란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경계로 이해한다. 그런데 *칼빈주의와 철학의 개혁(Het Calvinisme en de reformatie van de wijsbegeerte)*에서는 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설명했지만 나중에 *조직철학개론(Isagoogè Philosophiae)*에서는 ‘유효한 나뉠대로의 존재방식’으로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법을 설정하셨는데 이 법이야말로 볼렌호브가 전체 실재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 된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이중적 관계성을 말한다. 즉 하나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피조계의 관계성이며 또 하나는 입법자로서의 하나님과 그 법에 의해 세워진 세계이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결코

<sup>17</sup> D.H.Th. Vollenhoven, *Isagoogè Philosophiae* (Free University: Filosofisch Instituut, 1967)

<sup>18</sup> 도여베르트는 이것을 특별히 ‘개현’(ontsluiting, opening up)이라고 부른다.

<sup>19</sup> 이것을 카이퍼는 창조 명령(creation mandate) 또는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이라고 불렀다.

신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에 의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존재이다.<sup>20</sup> 인간은 종교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 선(순종)과 악(불순종) 두 가지로 응답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에 대한 이해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해 준다. 볼렌호븐은 여기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구별한다. 법의 통일성(*eenheid, unity*)은 인간의 마음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다. 인간은 이러한 ‘전기능적’ 마음에서 모든 기능과 행동들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이 통일성에서부터 인간의 다양한 기능적 삶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볼렌호븐은 사랑의 법이야말로 모든 양상적 법질서의 ‘머리’요 중심이라고 본다.

1952 년 말 볼렌호븐은 ‘하나님-법-우주’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면서 특별히 ‘법’에 대해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창조의 법’ 또는 ‘구조적인 법’으로 양상 기능적 존재방식 뿐만 아니라 개체의 발생 및 성장도 결정한다. 두 번째로 ‘계시의 법’인데 이것은 신적인 규범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법이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법’ 또는 ‘실증화된 법’이 있는데 이것은 앞의 두 법의 중간 다리역할을 하는 인간에 대한 법이다. 이것은 인간 행동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랑의 법에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달려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행동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증화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볼렌호븐은 사고 자체가 자충족적이지 않으며 사고보다 삶이 앞서고, 삶에는 우리의 방향 설정(*orientation*)에 따라 그 의미의 유무가 결정되는 ‘길’이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하나의 방향 설정은 모든 삶과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간은 믿을 수 있는 확고한 것에 삶과 사고의 근거를 두기 원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향 설정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근원은 성경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른 길, 즉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성경을 통해 인간은 어떤 철학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진정한 철학은 지식의 제 일 원리와 존재의 최종 근거 그리고 인간됨의 깊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 문제에 대한 열쇠를 어떤 ‘주의(-ism)’에서 찾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열쇠를 찾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며 전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과 인본주의적 철학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볼렌호븐은 단언하는 것이다.

### 3) 문제-역사적 방법

도여베르트가 그의 첫 조직 철학의 주저인 *De Wijsbegeerte der Wetdidee (The Philosophy of the law-idea)* 세 권을 1935-36 년에 출판하자 볼렌호븐은 단지 조직 철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 전체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서양 철학 전체에 대해

---

<sup>20</sup> 이러한 인간의 ‘응답성’을 좀더 발전시킨 학자는 헝크 헤르쯔마(Henk Geertsema) 교수이다. Geertsema, Henk G. 'Homo respondens. On the historical nature of human reason.' *Philosophia Reformata* 58, (1993), pp. 120-152. 보다 자세한 연구는 Govert Buijs, Peter Blokhuis, Sander Griffioen, Roel Kuiper (red.) *Homo Respondens: Verkenningen rond het mens-zijn*. Christelijk Wijsgerige Reeks 22,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Motief*, 2005). 또한 최용준, 『응답하는 인간』 (서울: SFC 출판사, 2008) 참조

비성경적인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개발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즉 철학의 역사를 보면 많은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포기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주제들이 ‘역사적으로’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볼렌호브의 철학 방법론인 ‘문제-역사적 방법(*Probleem-Historische Methode: Problem- Historical Method*)’이다.<sup>21</sup> 선형적 비판(*transcendental critique*)이 도어베르트의 특징적 방법론이었다면 이 방법이야말로 볼렌호브만의 독특한 접근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1950년에 볼렌호브는 그의 두 번째 주저라고 할 수 있는 철학사(*Geschiedenis der Wijsbegeerte: History of Philosophy*) 제 1권을 집필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서구 철학의 역사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규명하려고 시도했다.<sup>22</sup> 모든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실재를 보다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중요한 철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그렇게 한다. 볼렌호브는 그 중에서도 특히 존재론적 개념들 - 가령, 일원론 또는 이원론 등 - 을 정리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 주고자 노력했다. 그의 목표는 난해한 철학적 개념들을 알기 쉽고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철학사는 인물 중심이 아니라 주제, 즉 문제 중심이었던 것이다. 동시에 그는 철학사를 단순하게 일반화하지 않기 위해 세부적으로 분명한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여기서 그의 주된 관심은 서양의 모든 철학자들이 성경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 입장을 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성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고대 철학, 성경을 알고 적극 수용했던 교부 및 중세의 종합 철학 그리고 이 종합 철학을 비판하면서 다시 양극화된 근대의 르네상스 및 종교개혁의 철학이 그것이다. 이것을 달리 고대의 선종합 사상(*the pre-synthetic thought of Antiquity*), 종합 사상(*the synthetic thought of the Fathers and the Middle Ages*) 그리고 반종합 사상(*the anti-synthetic thought of the periods after that*)으로 표현하기도 한다.<sup>23</sup>

원래 볼렌호브는 이렇게 진행하여 전체 10권을 출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혼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어려워 팀을 구성하여 계속하기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미 출판된 1권에서 그는 플라톤 이전의 회랍철학을 다루었으므로 2권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루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이 너무나 진취적이며 생소하여 그와 함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교들이 우선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몇 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했다. 나아가 편집자들이나 논평자들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동료 학자들에게도 그의 독특한 방법론은 너무나 생소하여 공감을 얻지 못했다. 결국 정부로부터도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조교도 구하지 못해 그 이후의 출판은 연기되었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다. 동시에 볼렌호브 역시 대학 내에서 다른 보직도 많이 맡고 있어 출판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결국 1945년부터 1964년까지 발행된 오스트룩 백과사전

<sup>21</sup> D.H.Th. Vollenhoven ‘De consequent probleem-historische methode.’ *Philosophia Reformata*, 26 (1961) pp. 1-34. A. Tol, ‘IN MEMORIAM: DIRK HENDRIK THEODOOR VOLLENHOVEN’, *Philosophia Reformata* 43 (3-4) (1978) pp. 93-100 참조.

<sup>22</sup> 부제는 *Inleiding en geschiedenis der Griekse wijsbegeerte voor Platoon en Aristoteles*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회랍철학사 서론) (Franeker: Wever, 1950).

<sup>23</sup> B.J. van der Walt, ‘The Consistent Problem-Historical Method of Philosophical Historiography’, *ANAKAINOSIS: A Newsletter For Reformational Thought* Vol. 5 (2 and 3) Dec '82/ Mar '83 pp. 5-6.

(*Oosthoek's Encyclopedie*)에서 볼렌호븐은 다른 철학자들과는 달리 각 철학자들을 사고 유형 및 사조로 규정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개념들을 사용하였다.

남아공의 기독교 철학자인 B.J. van der Walt 는 이러한 볼렌호븐의 문제-역사적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근거를 들어 볼렌호븐의 방법론을 옹호한다.<sup>24</sup> 즉, 첫째는 그의 방법론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연구의 결과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이며, 둘째는 볼렌호븐도 필요한 경우 그의 방법론을 계속해서 수정,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고, 셋째는 그의 모델은 수천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단순화시켰다고 말할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볼렌호븐은 한 철학자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정황까지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볼렌호븐은 결국 이 작업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의 후계자인 톨(A. Tol)이 계속 연구했고, 브릴(K.A. Bril) 및 본스트라(P. Boonstra)은 볼렌호븐이 남겨 놓은 유작들을 정리하여 도표(Schematic chart)를 통해 서양 철학 전체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2000 년에 출판하였다.<sup>25</sup>

#### 4) 학문과 신앙

볼렌호븐의 학문과 신앙관도 도여베르트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상이점도 있다. 볼렌호븐에게 있어서 인간의 지식은 비학문적 지식과 학문적 지식으로 나뉜다. 전자는 일상생활에서 무엇에 대해 또는 누구에 대해 알게 되는 지식이다. 학문적 지식은 이와 달리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의 정의된 추상적인 영역에 대해 특정한 방법적 접근을 통해 획득하게 된다. 특히 그는 학문적 지식이란 결코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선행하는 비학문적 지식에 의해 계속해서 뒷받침되고 추진된다고 강조한다. 즉, 우리 자신, 우리의 필요와 결핍, 다른 사람들, 그들의 기대 등에 대한 비학문적 지식이 모든 학문 활동을 향한 ‘실존적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sup>26</sup> 즉 볼렌호븐에게 있어서 학문적 사고는 하나의 인식을 위한 방법인데, 그것은 비학문적 지식에 기초한 것이다. 학문하는 주체는 인간이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해 순종 또는 불순종하는 마음에 의해 학문이 이루어진다. 한 학자가 연구 분야 내에서 유사성, 차이성 그리고 관계성에 관해 방법론적으로 생각하면 그 연구 분야는 학문마다 다르지만 각 분야는 그 분야에 해당하는 독특한 성격과 법칙을 가진 영역을 포함한다. 개별 학문을 위한 분야와 그 한계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분야 내에서 구조적이고 생성적인 다양성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는 것이다.

볼렌호븐은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분야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학문의 정체성, 즉 타학문과 다른 고유한 영역에 대해 무관심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한 학문을 연구하려면 그 분야와 다른 분야간의

---

<sup>24</sup> 같은 논문, pp. 12-13.

<sup>25</sup> K.A. Bril & P. Boonstra, *D.H.Th. Vollenhoven, Schematische Kaarten* (Amstelveen: De Zaak Haes, 2000) 이것은 최근 미국에서 영어로 출판되었다. Kornelis Bril. *Vollenhoven's Problem-Historical Method: Introduction and Explorations*, (Dordt: Dordt College Press, 2005)

<sup>26</sup> D.H.Th. Vollenhoven, 'Het geloof, zijn aard, zijn structuur en zijn waarde voor de wetenschap' (신앙의 성질과 구조 그리고 학문을 위한 신앙의 가치), *Levensbeschouwing en levenshouding van de academicus* (학자들의 인생관 및 인간관계) (Utrecht: Dekker & Van de Vegt, 1950) p. 76.

경계를 엄격히 정한 후 그 분야 이외의 요소들은 일단 관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각 학문 분야의 분석적인 활동은 서로 동일하지만 각 학문의 방법은 분야의 특성상 서로 다르다고 볼렌호븐은 주장한다. 그는 비학문적 분석은 주로 ‘전체’를 구별하지만 과학적 분석은 제한된 탐구 영역에만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째로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탐구하는 방식이고 둘째로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분석이라고 하고 후자는 종합이라고 부르지만 볼렌호븐은 전자를 ‘분해(resolution)’라고 부르고 후자는 ‘구성(composition)’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도여베르트가 이론적 사고의 선형적 비판에서 말하는 소위 ‘이론적 대립’(theoretical antithesis)과 ‘이론적 종합’(theoretical synthesis)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그는 데카르트적인 학문관, 즉 모든 것을 파괴시킨 후 다시 건설하는 입장을 단호히 거부한다. 왜냐하면 실제 세계는 하나의 주어진 것이며 우리의 지식은 인간의 구성의 결과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분해와 구성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지적 과정이며 이것은 다시 전체적인 연관성 속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7</sup> 비록 과학이 통찰력있는 도구이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는 볼 수 없는 세부적인 것들과 그 연결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철(prosthesis)에 불과하다고 그는 주장한다.

볼렌호븐은 또한 각 학문 영역에도 종교가 기능한다고 강조한다. 가령 심리학을 연구할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심리와 그렇지 않은 자의 심리가 다르다는 것이다.<sup>28</sup> 일반적으로 인문 사회 과학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든 그 분야에 주어진 하나님의 규범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볼렌호븐은 주장한다. 나아가 학문적인 활동 자체 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을 준수하는지 않은지 나타난다고 말한다. 학문적 분석의 결과 바른 지식과 그렇지 않은 지식간의 대립적인 차이는 ‘그에 선행하는 사고와 해당하는 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대립에 의존한다’는 것이다.<sup>29</sup> 따라서 신앙은 개별 학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종교적 대립은 각 학문 분야에서의 진위 및 선악의 대립과 연관된다고 본다. 학문이 궁극적으로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볼렌호븐의 주장은 도여베르트와 동일한 점이다.

우주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 있어 그는 세 가지 종류의 상호 환치될 수 없는 차이를 언급한다. ‘이것과 저것의 차이(이것은 저것이 아니다)’, ‘이렇고 저렇고의 차이(한 존재 양식은 다른 존재 양식이 아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차이’이다. 따라서 볼렌호븐이 종교가 과학적 분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말할 때 그는 단지 선한 의도로 학문을 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에서 실제적인 차이들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가령 철학에 있어서는 ‘철학이 모든 다양성을 올바르게 다루어야 하는 규범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sup>30</sup>

<sup>27</sup> D.H.Th. Vollenhoven, *Inleiding tot de wijsgeerige anthropologie*. (철학적 인간학 개론) (Amsterdam: Theja, 1957), pp. 18-9.

<sup>28</sup> 같은 책, p. 13.

<sup>29</sup> D.H.Th. Vollenhoven, 'De waarheid in de godsdienstwijsbegeerte' (종교철학의 진리) *Vox Theologica*, XIII, 6 (1942) p. 114.

<sup>30</sup> D.H.Th. Vollenhoven, 'Conservatisme en progressiviteit in de wijsbegeerte (철학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성)' in *Conservatisme en progressiviteit in de wetenschap (학문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성)*. (Kampen: Kok, 1959) p. 39.

## 5) 단정적-비판적 방법(thetical-critical method)

볼렌호븐은 성경적 철학 또는 성경에 근거한 사고는 하나님의 주권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법,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고와의 종합도 단호히 배척한다. 물론 그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이론적 지식을 준다고는 믿지 않는다. 다만 그가 학문 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충고는 ‘개혁’이다. 볼렌호븐에게 있어서 ‘개혁’이란 먼저 하나님과 그의 법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회심 (conversion)’이다. 이론적인 추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재고, 수정 그리고 재형성 등과 같이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모든 기본 범주와 개념적 틀은 이미 완성된 폐쇄체계가 아니라 열려 있는 잠정적 체계이다. 그래서 그는 단정적-비판적 방법(thetical-critical method)라고 하는 방법론을 발전시켰다. ‘단정적’이라는 말은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나 질문들을 나름대로 실증화된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 작업은 제기한 이슈에 관해 가능한 간결하고 명료하게, 성경에 기초한 기본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어느 정도 사물에 대해 정의된 개념을 전제한다. 동시에 이러한 성경적 기초 위에서 이론적인 작업을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문 활동은 언제나 비판적이어야 한다고 볼렌호븐은 강조한다. 즉 다른 사람들의 이론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이론뿐만 아니라 평가하는 자신에 대해서도 늘 비판적이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볼렌호븐은 결코 독단주의자가 아니었으며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했고 또한 실제로도 베르그송(H. Bergson)이나 러셀(B. Russell)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또한 칼빈주의 전통에 대해서도 그는 무조 건적인 수용보다는 항상 비판적 검토를 거친 후 자기 것으로 소화했다. 나아가 자기비판도 매우 엄격하여 자신의 견해도 나중에 오류가 있다고 발견되면 바꾸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 6) 도여베르트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도여베르트와 볼렌호븐은 함께 네덜란드에서 기독교 철학을 발전시켰지만 유사점과 동시에 차이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 간략히 정리해 보겠다.

먼저 ‘법’ 개념에 대해서는 둘 다 그 개념의 존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다. 하지만 도여베르트가 ‘법’을 보다 우주적으로 이해하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학문적 지식의 대상으로 이해한 반면 볼렌호븐은 피조물들 간의 기능적 연관성이 가지는 우주적 특성 및 규칙성으로 보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볼렌호븐은 이 부분을 철저히 성경과 연결시키면서 성경의 사랑의 계명에 바로 응답할 때에만 모든 기능적 삶이 올바르게 작용한다고 강조한다.

둘째로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인간의 ‘마음’에 관한 부분이다. 도여베르트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초시간적(supra-temporal)’인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시간내적 양상을 초월하여 이론적 사고가

이루어지며 나아가 기원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곳이 ‘마음’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볼렌호븐은 그러한 관점은 분명히 성경의 진술과는 배치되며<sup>31</sup> 나아가 이것은 결국 ‘초시간적 마음’과 ‘시간내적 양상 기능’을 나누는 이원론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다.<sup>32</sup>

셋째로 서양 철학 전체에 대한 비판의 관점에서 볼 때 두 학자 모두 인본주의적 혹은 종합 철학에 대해 비판한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그 접근 방법은 다소 상이하다. 도여베르트는 ‘이론적 사고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조직 철학적 관점에서 서양 철학의 비기독교적 뿌리를 종교적 근본 동인(*religious ground motive*)을 통해 선형적으로 비판하려고 했다면 볼렌호븐은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문제-역사적 방법을 통해 인본주의 철학을 비판하려고 했다. 볼렌호븐은 서양 철학 전체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그 성격 및 기원 그리고 비성경적인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면서 하나님, 법, 우주라고 하는 기본적인 실재를 기준으로 서양 철학 전체의 발전사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화함으로써 모든 비성경적인 철학의 영향들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그림을 놓고 본다면 도여베르트는 큰 숲에 관심을 가지고 서양 철학 및 문화를 거시적으로 접근하여 세부적인 부분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볼렌호븐은 매우 꼼꼼한 학자적 치밀성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철학사를 미시적으로 분석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여베르트가 비판적 철학자였다면 볼렌호븐은 분석적 철학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볼렌호븐이 주로 기독교인, 특히 칼빈주의자들로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철학을 개진했다면 도여베르트는 훨씬 그 폭을 넓혀 모든 종류의 철학자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며 선형적 비판을 통해 기독교 철학적 대안을 제시했다. 도여베르트가 광범위한 기독교 철학 체계를 세우려 노력했다면 볼렌호븐은 그 체계에 깊이를 더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볼렌호븐 및 도여베르트 두 사람의 기독교 철학은 결코 상호 배척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출발점에서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학문 활동을 하였으나 도여베르트는 법학적인 배경에서 볼렌호븐은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발전시켰기에 나타난 다양성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동시에 모든 기독교 철학이 획일화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 5. 볼렌호븐의 영향 및 평가

### 1) 그의 영향

<sup>31</sup> 그 근거로 볼렌호븐은 삼하 14:14을 인용한다.

<sup>32</sup>보다 자세한 내용은 D.H.Th. Vollenhoven, *De Problemen Rondom de Tijd* [The Problems Around Time]. 이 글은 원래 1968년 3월 29일 칼빈주의 철학협회 암스테르담 지부에서 행한 강연이었는데 A. Tol 및 K.A. Bril이 *Vollenhoven als Wijsgeer*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1992), pp. 199-211에서 정리하여 인용했다. 영문은 J. Glenn Friesen이 번역하여 [www.members.shaw.ca/hermandoooyeweerd/Tijd.html#prob1](http://www.members.shaw.ca/hermandoooyeweerd/Tijd.html#prob1)에 올려 놓았다.

1922 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스토키(H.G. Stoker)가 헤이그에 있던 볼렌호븐에게 와서 학위논문 지도를 요청하여 학위를 받은 후 남아공 포체프스트롬(Potchefstroom) 대학교 철학교수가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나중에 볼렌호븐은 남아공의 포체프스트롬, 프리토리아(Pretoria) 그리고 블룸폰테인(Bloemfontein) 대학교에서 일련의 강의를 하였다. 볼렌호븐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이외에도 남아공의 딸야르드(J.D.L. Taljaard)가 있으며 포체프스트롬의 반 데어 발트 및 펜터(Venter) 교수 또한 볼렌호븐의 영향을 받았다.

미국에서 온 런너(H.E. Runner) 및 제어펠트(C.G. Seerveld)도 볼렌호븐의 제자들이다. 특히 런너는 볼렌호븐과 도어베르트의 철학을 미국과 캐나다에 소개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고 그 결과 토론토에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기독교학문연구소)'를 세워 자유대학교와 협력관계를 구축했던 것이다. 반면에 제어펠트는 특히 기독교 예술 철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또한 미국의 존 콕(John Kok)은 볼렌호븐의 진반기 철학사상의 발전에 대해 논문을 제출하여 자유대학교 철학부에서 학위를 받은 후 현재 돌트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볼렌호븐의 사상을 계속해서 연구, 발전시키고 있다.

자유대학교 내에서는 물론 앞에서 언급한 교수들 외에 무엇보다 야썸 클랍베이끄(J. Klapwijk)를 들 수 있다. 그는 볼렌호븐의 대립과 일반 은총의 신학적 구별 및 서양 철학 내에서 극단성 및 규범성에 대해 좀더 깊이 연구하였다. 그 외에도, 사회철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흐리피운 교수(S. Griffioen)도 도어베르트보다는 볼렌호븐의 영향을 더 받았고 현대철학을 가르치는 톨(A. Tol) 교수, 은퇴한 브릴(K.A. Bril)<sup>33</sup> 그리고 캐나다 출신으로 돌트 대학을 졸업하고 자유대학교에서 공부한 본스트라(P. Boonstra) 등이 계속해서 볼렌호븐 재단을 설립하여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으며 <sup>34</sup> 그의 저작들을 정리하여 출판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다.

## 2) 그의 기독교 철학 평가

볼렌호븐은 도어베르트와 함께 네덜란드에서 기독교 철학을 분명한 하나의 학문과 학파로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운동으로 전 세계에 퍼져 나가게 했다는 점에서 그 공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볼렌호븐은 무엇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시에 철저히 의존했던 경건한 신학자였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동시에 따뜻한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목회자였으며 <sup>35</sup> 동시에 학자적 치밀성을 가지고 서양 철학사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 노력했던 기독교 철학자였다. 따라서 그의 철학서들을 읽으면 그에게는 신학과 철학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만큼 그는 철저한 '칼빈주의적' 철학자였다.

<sup>33</sup> A. Tol & K.A. Bril, Vollenhoven als wijsgeer: Inleidingen en teksten (철학자로서의 볼렌호벤: 서론 및 텍스트들) (Amsterdam: Buijten & Schpperheijn, 1992).

<sup>34</sup> <http://www.aspecten.org/vollenhoven/newsletter1.htm> 참고

<sup>35</sup> 그래서 학생들로부터도 매우 존경받는 인격자였다.

볼렌호븐은 어떤 저작을 할 때에도 거의 완벽주의를 추구할 정도로 치밀하고 깊이 있게 저술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은 깊이가 있었고 쉽게 읽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배운 제자들이 아닐 경우 화란어로만 된 그의 기독교 철학 체계를 소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영미권의 제자들이 그의 저작 및 그의 철학에 대해 영어로 번역 내지 집필을 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점이다.

이 부분은 그의 강점인 동시에 기독교인이 아닌 철학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즉 대화의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도여베르트는 이것을 ‘이론적 사고’라고 하는 것에서 찾아 ‘대화(communication)’와 ‘대립(confrontation)’을 동시에 추구했다. 하지만 볼렌호븐의 경우에는 ‘선형적 비판(transcendental critique)’라기 보다는 ‘칼빈주의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10 권으로 기획했던 철학사의 편찬도 계속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렌호븐은 오히려 ‘전제적 변증학(presuppositional apologetics)’으로 유명한 미국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변증학 교수였던 코르넬리우스 반 틸(Cornelius Van Til)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볼렌호븐의 의도는 역시 이미 그리스도인들인 철학자들에게 진정한 기독교 철학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보여주려고 했으므로 그의 학문적 진지함과 학자로서의 헌신적인 생애는 모든 기독교 학자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한국 내에서도 그의 기독교 철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 발전되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1. 논문

- Geertsema, Henk G. 'Homo respondens. On the historical nature of human reason.' *Philosophia Reformata* 58, (1993), pp. 120-152.
- Stellingwerf, J. 'Prof. dr. D. H. Th. Vollenhoven (1892-1978)', *Beweging*, 5, 1992.
- Tol, A. 'Vollenhoven als systematicus' (조직철학자로서의 볼렌호브) *Beweging*, 5, 1992
- Tol, A. 'IN MEMORIAM: DIRK HENDRIK THEODOOR VOLLENHOVEN' (볼렌호브 추모), *Philosophia Reformata* 43 (3-4) (1978) pp. 93-100.
- Van der Walt, B.J. 'The Consistent Problem-Historical Method of Philosophical Historiography', *ANAKAINOSIS: A Newsletter For Reformational Thought* Vol. 5 (2 and 3) Dec '82/ Mar '83.
- Vollenhoven, D.H.Th. *Mededelingen van het Vereniging voor Calvinistisch Wijsbegeerte* (칼빈주의 철학협회 소식) Sept. 1953, pp. 6-9.
- Vollenhoven, D.H.Th. 'Conservatisme en progressiviteit in de wijsbegeerte (철학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성)' *Conservatisme en progressiviteit in de wetenschap* (학문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성). Kampen: Kok, 1959.
- Vollenhoven, D.H.Th. 'De consequent probleem-historische methode.' (일관성있는 문제-역사적 방법), *Philosophia Reformata*, 26 (1961) pp. 1-34.
- Vollenhoven, D.H.Th. 'De waarheid in de godsdienstwijsbegeerte' (종교철학의 진리) *Vox Theologica*, XIII, 6 (1942).
- Vollenhoven, D.H.Th. 'Het geloof, zijn aard, zijn structuur en zijn waarde voor de wetenschap' (신앙의 성질과 구조 그리고 학문을 위한 신앙의 가치), *Levensbeschouwing en levenshouding van de academicus* (학자들의 인생관 및 인간 관계), Utrecht: Dekker & Van de Vegt, 1950.
- 최용준, 「헤르만 도어베르트: 변혁적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철학의 성격을 확립한 철학자」, 손봉호 외,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9 인』, 서울: IVP, 2005, pp. 37-66.

### 2. 저서

- Bril, K.A. & Boonstra, P. *D.H.Th. Vollenhoven, Schematische Kaarten* (볼렌호브, 스케마적 도표들) Amstelveen: De Zaak Haes, 2000.
- Bril, Kornelis. *Vollenhoven's Problem-Historical Method: Introduction and Explorations*, Dort: Dordt College Press, 2005.
- Buijs, Govert. Blokhuis, Peter. Griffioen, Sander. Kuiper, Roel (red.) *Homo Respondens: Verkenningen rond het mens-zijn* (호모 레스폰덴스: 인간됨에 대한 성찰). Christelijk Wijsgerige Reeks 22,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Motief, 2005.
- Choi, Yong Joon *Dialogue and Antithesis: A Philosophical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Herman Dooyeweerd's Transcendental Critiqu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2000.  
<http://www.dooy.salford.ac.uk/papers/choi/index.html> 에서도 찾을 수 있다.
- Kok, John H. *Vollenhoven: His Early Development*, Iowa: Dordt College Press, 1992.

Tol, A. & Bril, K.A. *Vollenhoven als Wijsgeer: Inleidingen en teksten* (철학자로서의 볼렌호벤: 서론 및 텍스트들) Amsterdam: Buijten & Schpperheijn, 1992.

Vollenhoven, D.H.Th. *Geschiedenis der Wijsbegeerte* (철학사) Vol. 1: *inleiding en geschiedenis der Griekse wijsbegeerte voor Platoon en Aristoteles*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회랍철학사 서론) Franeker: Wever, 1950.

Vollenhoven, D.H.Th. *Het calvinisme en de reformatie van de wijsbegeerte* (칼빈주의 및 철학의 개혁), Amsterdam: H. J. Paris, 1933.

Vollenhoven, D.H.Th. *Isagoogè Philosophiae* (철학서론) Free University: Filosofisch Instituut, 1967.

Vollenhoven, D.H.Th. *Logos en ratio, beider verhouding in de geschiedenis der Westersche kentheorie.*(로고스와 이성, 서양의 인식론 역사에서 양자의 관계) Kampen: Kok, 1926.

Vollenhoven, D.H.Th. *Inleiding tot de wijsgeerige anthropologie.* (철학적 인간학 개론), Amsterdam: Theja, 1957.

Zuidema & Popma, ed. *Wetenschappelijke bijdragen door leerlingen van Dr. D.H.TH. Vollenhoven* (볼렌호벤 교수의 제자들이 헌정한 학술 논문집) Franeker: T. Wever, Potchefstroom, 1951.

최용준, 『응답하는 인간』 서울: SFC 출판사, 2008.

### 3. 인터넷 사이트

[www.dooy.salford.ac.uk/voll/scripture.phil.html](http://www.dooy.salford.ac.uk/voll/scripture.phil.html)

[en.wikipedia.org/wiki/D. H. Th. Vollenhoven#Vollenhoven and Dooyeweerd](http://en.wikipedia.org/wiki/D._H._Th._Vollenhoven#Vollenhoven_and_Dooyeweerd)

[en.wikipedia.org/wiki/D. H. Th. Vollenhoven#Doctorate and the Free University](http://en.wikipedia.org/wiki/D._H._Th._Vollenhoven#Doctorate_and_the_Free_University)

[www.aspecten.org/vollenhoven/kok.html](http://www.aspecten.org/vollenhoven/kok.html)

[www.aspecten.org/vollenhoven/newsletter1.htm](http://www.aspecten.org/vollenhoven/newsletter1.htm)

[www.members.shaw.ca/hermandooyeweerd/Tijd.html#probl](http://www.members.shaw.ca/hermandooyeweerd/Tijd.html#probl)